

12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꺼이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

- 우리는 신념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과관계는 그 반대라는 사실을 인지 부조화 이론은 시사한다.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행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행동에 합치되도록 의사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합리적인 생물이 아니라 나중에 합리화를 도모하는 생물이라는 거시 페스팅어가 내놓는 답이다.

-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타인에게 의뢰할 때 더 높은 대가를 지급해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실험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 사실과 인지 사이에 발생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지를 바꾸는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 우리는 주위의 영향을 받아 생각이 바뀌고, 그 결과 행동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믿는다.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의식으로 행동을 다스리는 자율적 이상형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페스팅어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뒤엎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압력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의식과 감정을 적응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